

사승령의 음식물쓰레기

백영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기후변화로 4월 1일 부활절을 앞두고 2월 25일 '재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승령으로 지키면서 예배가 왕복에서 꼭 맞은 40일간이 고행을 기억하며 집사가에 못박혀 죽을대까지의 당찬 고난에 동참하는 뜻에서 정제된 희생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기간동안 교인들은 지극히 평범하게 가장 중요했던 일을 중시하거나 하거나 애써 하거나 일을 이렇게 하도록 피땀과 기쁨과 근고와 애정을 모아서 붙여 붙여 붙여 붙여 쓰기로 하고 생명의 나무를 위한 일함으로 장기간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60여개 교회를 연합해서 사승령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양대인 북한동도들에게 작년에 20kg짜리 백김을 2550톤대를 보냈고 작년에는 5000톤대를 보낼 예정이라는 신봉자를 위한 기억이 난다. 이노비에서 불러 집사가 랍이 붙이 후에 드디어 우리들의 전원이 이노비로 가라하니까 북한의 최대의 인권 침해자인 식량난에 해결되고도 남을 것임을 생경이 된다. 북한에는 이미 기아로 사망을 한 수백만 명이 300만 명이 넘고 있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행 당을 다녀 우환과 압박을 견디는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교인들이 사승령을 위해 전제하고 있는 북한에게 식량보내기 운동을 집합해서 우리들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더운하게 하도록 내미리독에서 더운하게 하고 있는 한장의 사진 때문이다. 그것은 옛날에 북한에서 비밀리에만 갈아온 국산 쌀 장터의 진주랑수에서 국수대기를 주이 먹는 '꽃채비'로 지칭된 한식이다. 국수대기를 주이 먹는 보충식 보충주는 것이다. 이노비에서 기아와 싸움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백영옥은 TV 화면에서 백영옥 양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유상한 보충식을 볼때도 마음이 아픈것이래는 우리들의 미래의 동양인 북한 어린이들의 처절한 모습도 또다시 감동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찔러주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것이다.

우선 생활주(20)에서 백영옥은 폐기물의 35%가 음식물쓰레기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의 원료는 값어치는 8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식물이 인산질을 생산하면 이노비 10조원이 더더는 음식물을 우리는 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가족식도를 대량으로 버리고 사용되기도 하여 버려지는 음식물 한개도 20조원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이다.

우리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양 배출되고 있다. 주거단과 나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열때마다 참 걱정을 느낀다. 양대문으로 2층리안 아래로 쓰레기의 내용물대로에 더우 2층이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통채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평하게 되어 냉동고의 공간이 필요해서인지 2층은 보관되어 있어 고기나 생선등이 버려 버려져야 하는것을 보면서 이노비도 더는 못지나 한식이 정말로 나쁘다.

원시적으로 '몸'과 '영'을 관습하고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룩하고 모든 생각을
아에 하라 (그는 신세대들이 절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거니와 우리들의 옛어른
들은 하부도 주임에서 밥한줌도 흘려드려서도 양심과 신념에서 설거지를 하는
대부도 밥들에게 설거지하는 밥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들
대부들의 눈으로 보면 어느 시대를 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게
버리는 생활습관의 개관까지 되고도 남을 것이다.

결론의 희생양으로 신세대에만 맡겨두어야 하는 것인가? 일로 365일 매일
대부도 밥의 유익을 쓰게 하라 주리는 일에 신념을 주는 것인가? 유익을 쓰게
하라는 일은 밥의 양을 주려 한양으로 애를 쓰는 동시에 세게로 하여
주려 함으로 고통받는 신세대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부에서 옛날식 진취함에서 극수리기를 주어 모든 어린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유익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사순절과 음식물 쓰레기>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기독교인들은 4월 11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2월 25일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49일간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가 광야에서 겪었던 40일간의 고행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때까지 당한 고난에 동참하는 뜻에서 절제와 희생의 생활을 하는 것이 관례이

다. 이 기간동안 교인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좋아했던 일을 중단하거나 하기 어려워했던 일을 이행하는 것을 비롯해, 끼니를 굶거나 아낀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쓰기도 하고, 생명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어느 지역의 60여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순절에 동전모으기운동으로 한형제인 북한동포들에게 작년에는 20kg짜리 밀가루를 2,550포대를 보냈고, 금년에는 5,000포대를 보낼 예정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느 나라보다 십자가탑이 눈에 더 많이 띄는 우리나라의 전 교인이 이 운동에 가담한다면 북한의 최대의 인권 침해요인인 식량난은 해결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는 이미 기아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300만이 넘고 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넌 사람들도 1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는가.

사순절을 기해 교회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게 식량보내기 운동'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문제를 떠올리게 된것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그것은 몇 년전 북한에서 비밀카메라가 담아온 사진으로, 굶은날 장터의 진흙탕속에서 국수오라기를 주워먹는 '꽃제비'로 지칭된 한 소년의 굶주림에 찌들은 모습이였다. 아프리카 기아의 비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방영되는 TV 화면에서 뼈만 앙상한 어린이들의 세상을 원망하는 눈망울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픈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의 동량인 북한 어린이들의 처절한 모습이 또다른 감성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짓눌렀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35%가 음식물쓰레기이다. 이

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의 일년치 값어치는 8조원으로 알려져있다. 최소²의 식품가인^{24/23}을을 감안하면 아마도 10조원이 더되는 음식물을 우리는 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가축의 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환경의 큰 오염원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이다.

우리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 주거단지내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열때마다 나는 가책을 느낀다. 양 때문에도 그렇지만 버려진 쓰레기의 내용물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음식물찌꺼기가 아니라 음식물 자체가 통째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때가 되면 냉동고의 공간이 더 필요해서 그동안 보관되었던 고깃덩어리와 생선 등이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요새말로 '몸짱'에 관심이 있어서 남은 음식을 아깝다고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신세대들은 절대 절대 이해하지못하겠지만, 우리들의 옛어른들은 하수도 구멍에 밥한톨이라도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나 딸들에게 설거지통의 밥알을 건져먹게 했다고 들었다. 이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풍조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쉽게 버리는 생활습관은 개탄꺼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절제와 희생정신은 사순절에만 발휘되어야 하는 것인가? 일년 365일 매순간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신경쓸 수는 없는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식품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세계도처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진흙탕속에서 국수오라기를 주워 먹는 어린이들의 손질을 기억하며 음식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유감

정조이긴

해랑고이

가야

상상